



전도심 기억을 담다  
도시재생 공간 탐색

(1) 산지천갤러리

# 제주항 가는 길 오래된 여관 전시장으로



1 산지천에서 바라본 산지천갤러리 전경. 옛 목욕탕 골목이 랜드마크처럼 솟아있다.  
2 전시실 내부 목욕탕 골목 기록.  
3 갤러리 4층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 상설전.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 금성장·녹수장 두 곳 살려 15억 투입 4층 갤러리 변신 기존 미술관과 다른 공간성

제주 사람들의 삶이 스며든 곳이 있다. 낡고 쓸모 없어진 건물을 허무는 대신 예술로 되살렸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접근이 자유롭지 않으나 원도심의 오랜 역사를 품고 지역민과 호흡하려는 공간들을 돌아본다.

제주시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등 산지로 일원 공공 문화공간을 일컫는 '탐라문화광장'. 2018년 탐라문화광장 조례 제정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시설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산지천갤러리와 같은 문화공간이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565억원을 들여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할 때 기존 건물은 모조리 철거할 예정이었다. '탐라문화'를 말하면서도 제주섬의 일상을 품었던

공간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문화를 입힌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제주도는 2017년 2월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일부 존치를 결정했다. 산지천갤러리(제주시 중앙로 3길 36)도 그중 하나다.

지상 4층 산지천갤러리는 산지천변 여관과 목욕탕을 갖춘 금성장과 녹수장 건물 두 개를 이어 새로 태어났다. 제주 작가들의 작품과 제주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 작가의 유작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기획되며 산지천갤러리란 명칭이 달렸다. 이미 산지천갤러리 맞은편엔 여관을 리모델링한 사설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2)'이 문을 연 상태였다.

제주 숙박업은 제주 관광정책과 달아있다. 제주시에 제주관광호텔이 들어선 해는 제주관광개발정책이 추진되던 1963년이었고 1973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며 제주는 관광의 섬으로 속도를 낸다. 1927년 개항한 제주항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산지천 숙박업소들도 제주관광개발정책과 흐름을 같이한다. 특히 1977년 4월 제주-부산에 이어 6월엔 제주-목포를 잇는 대형카페리 취항으로 뱃길 이용객이 늘며 숙박업 증가에 영향

을 끼쳤다. 금성장 역시 금성모텔로 간판을 바꿔달며 3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었다.

2017년 12월 개관한 산지천갤러리는 '사진으로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낚을과 씨줄로 잇는 곳'으로 길을 때어놓았다. '금호탕' 골목이 랜드마크처럼 솟아있고 전통적인 화이트큐브 미술관과는 다른 공간성으로 전시장에 빛깔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김수남-아시아의 바다를 담다'를 시작으로 만능 흥정표 사진전, 신상범 초대전, 원도심의 발자취 사진전, 제주 해녀의 삶 초대전 등 사진에 담은 제주 이야기가 펼쳐졌고 '탐라순력도-산지천을 노닐다', '낚을 잇는 달', '생명 속의 안식처' 등 시각예술 전 분야로 확대한 전시가 개최됐다. 김수남 사진전도 개관 전 이래 상설전으로 꾸러졌다.

15억51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된 산지천갤러리는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산지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표방했으나 그만한 인력, 재정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갤러리 내부 목욕탕 기둥이 금성장·녹수장의 기억을 전해줄 뿐 옛 시설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 남녀 월평균 임금 격차 92만원 넘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임금 여 190만·남 282만원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 최대 숙박·음식 여성대표자 많아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90여 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이 최근 펴낸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현재 제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고 이를 통계의 도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발간됐다. 인구와 가족, 보육과 교육, 경제활동, 건강과 복지, 사회참

여와 문화, 안전과 환경 등 총 6장으로 짜였고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여학생 79.0%, 남학생 74.2%로 여학생이 더 높았다. 여성 석사과정 졸업자는 57.2%로 남성보다 많은 반면 박사과정은 27.1%로 적었다.

2019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남성(77.0%)보다 낮고 경제활동인구는 3만6000명 더 적었다. 고용률 격차는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다. 이 시기 여성 고용률은 30~34세 61.8%, 35~39세 62.3%이나 남성 고용률은 30~34세 92.5%, 35~39세 94.8%였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여성 190만3000원, 남성 282만5000원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67.4% 수준으로 남성보다 92만 1000원 더 적었다. 2010년과 비교했

을 땀 여성은 53만3000원, 남성은 72만2000원 증가했다.

사업체 여성 대표자 비율은 43.5%로 전국 수준보다 5.1%p 높았다.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58.5%), 교육서비스업(58.3%) 등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34.7%로 전국수준보다 낮지만 2010년 대비 여성공무원 수가 63.1% 증가(남성은 7.8% 증가)하는 등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8.3%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38.9%로 전국 40.8%보다 낮았다.

2018년 기준 범죄위험에 대한 제주 여성의 불안 인식은 2016년보다 18.9%p 감소했으나 불안 58.1%로 남성(4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여성 50.5%로 남성(28.1%)보다 컸다. 진선희기자

# 관악·타악콩쿠르 결선도 영상심사

관악제조직위 11월 5~8일 8개국 12명 진출 랜선심사

2020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결선이 결국 영상심사로 치러진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현을생)는 지난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결선을 온라인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콩쿠르 1~2차 예선을 온라인 영상심사로 마쳤다. 올해는 유포

니움, 베이스트롬본, 튜바 등 저음역의 금관악기와 타악기 등 4개 부문에 걸쳐 경연이 이루어졌고 1~2차 예선을 통해 부문별 3명씩 8개국 12명의 결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심사위원은 15개국 24명에 이른다.

결선은 당초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진행되고 11월 9일에 임상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완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결선만족은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019제주국제관악콩쿠르.

변경이 불가피했다. 조직위는 최근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심사위원장 스킷 하트만(미국), 예술감독 스티븐 미드(영국) 등 관련기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결선도 영상심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피아노 반주가 따른다. 진선희기자

# 한라일보 인문역사 강의 온라인 전환

코로나 여파에 오는 16일부터

2020한라일보 인문역사 강의 '돌에 새긴 기록, 길에 새긴 역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강의는 지난 7월 22일 시작돼 수요일마다 매회 2시간씩 한라일보

회의실에서 이어져왔다. 다만 8월 26일과 9월 2일 강의는 대풍 북상으로 휴강했다.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인 제주 흥기표 박사가 강의를 맡는다. '돌에 새긴 기록, 길에 새긴 역사'는 총 12회에 걸쳐 마련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의 고문헌, 모흥

철·칠성도·광양당 등 탐라유적의 종합 고증, 백제 무령왕릉 발굴 유물 등 역사 유적과 유물, 청자·향교·서원 등 문화재 이해, 제주 마애명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남은 일정은 총 6회로 온라인 강의는 9월 16일 강좌부터 적용된다. 강의 내용은 녹화 후 한라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현장 강의로 전환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참고. 문의 750-2291. 진선희기자

제주CBS 창립 19주년 기념 코로나19 위기 극복 힐링 음악회

드라이브인 콘서트

# Jazz in Jeju 2020

힐내라 제1주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앙상블 라틴&탱고

2020. 9. 15 (화) 오후 7:30

시민복지타운 광장주차장 특설무대

주최 | 제주 CBS 후원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드라이브인 콘서트 Jazz in Jeju 2020은 코로나 19시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www.jjcbcs.co.kr www.nocutnews.co.kr FM 제주 93.3 서귀포 90.9 SkyLife 182 Olleh 238 Btv 300 U+tvG270 케이블 TV 371

사전예약 차량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유증상자분들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예약접수 : www.jjcbcs.co.kr | 접수문의 : 064-748-7400 | 접수기간 : 2020.09.01 ~ 접수 마감 시까지